

## 주한외교단 리셉션

주한외교사절단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초청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더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그리 덥지 않아 매우 다행입니다. 여러분 중에 오신분도 계시지만 이 정원은 청와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신비한 기운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쬐는 햇빛과 공기는 여러분의 건강에 좋은 약이 되고 행운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국에서의 생활이 즐거우리라 생각합니다. 문화·기후·자연 등의 다양성에 대해 높게 평가할 것입니다.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 주재하면서 볼 수 없는 또 다른 구경거리도 있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만 하시는 건데 한국 대통령도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평소에도 행동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탄핵 중에는 청와대에 연금 또는 유죄 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건강과 희망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의지도 중요했지만 녹지원의 아름다운 자연과 맑은 공기, 환경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낸 신비로운 공기를 나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부담되지 않고 이웃나라에 걱정을 끼치지 않으며 세계 역사문화에 기여

4월과 5월의 청와대는 특히 녹지원의 꽃은 다양하고 화려했으며 아름다웠습니다. 그 때는 더 아름다운 경치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보니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은 민족·인종적으로 다양하고 다양한 국가에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모습도 다양하고 아름답습니다. 한 분 한 분 다양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접할 수 있어서 지난번의 자연보다 훨씬 훌륭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서로서로 같은 느낌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의 공통된 목표는 남에게 부담되지 않고 손해를 주지 않고 위협되지 않는 것이 첫째입니다. 둘째는 우리 일로 이웃나라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는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많은 성취를 이뤄서 이웃나라들과 나눠서 세계 역사문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같은 목표 있지만 거래상 이해관계나 안보적 이유로 얼굴 붉히고 다투는 일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항상 웃고 남을 배려하고 협력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더라도 여러분을 만나면 걱정이 없어집니다. 모든 게 잘 풀릴 것 같다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조금 전 여러분들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표현했는데 평소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꾸어오고 훈련돼 있기 때문에 저에게 주는 느낌이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졌다고 생각합니다. 살다보면 좋을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런데 나라 간에도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근무하고 계시는 동안 한국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나쁜 일을 접고, 좋은 일만 더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보람을 느끼게 되고, 본국에서 칭찬받는 외교관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문에서는 항상 위기를 말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그 위기를 다 극복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나는 여러 나라 외교관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국가 상호간에 갈등 같은 것이 해소되는 일들이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한국

안에, 한국을 둘러싸고 세계적 관심사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도 여러 어려움에 부딪혔지만 잘 극복, 관리한데는 국민들이 노력과 세계 이웃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이하게 된 것은 국민들의 따뜻한 사랑이 있었지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나라를 대표하는 국민들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나라의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한국에서 신문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걱정스런 일이 많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경제가 뒷걸음치고 정치가 파탄 나고 혼란스럽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는데 지나고 보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문에는 위기가 아닐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위기를 다 극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문제목이 사실과 달랐거나 국민들이 끊임없이 기적을 생산하는 역사 중 둘 중 하나였습니다. 어느 쪽이던 간에 여러분들이 고국에 한국 소식을 보낼 때 신문 제목만 보고 그대로 보내지 말고 저나 공무원, 자신만만한 국민들에게 한 번 더 물어보고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경제적 애로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대비하는 있어서는 완벽하게 해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노사문제도 별 걱정이 없습니다. 이것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신문 얘기하니까 어떤 분의 표정을 보니 대통령이 언론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더니 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구나 하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건배 제의하겠습니다.